

교회 이탈 학생, 예배/설교가 지루해서 교회 떠난다!

해마다 교회학교 학생 수는 줄고, 교회학교가 사라지는 교회가 늘어나는 가운데, 현재 예배 자리를 지키는 청소년들의 내면에도 이탈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사)꿈이 있는 미래와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공동 출간한 ‘2026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에 따르면, 교회 출석 중고생의 41%는 지난 1년 사이 교회 이탈을 고민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인지하는 교회 어른(사역자, 교사, 부모)은 10%대에 불과해 현장의 온도 차가 매우 컸다. 또한 실제 교회 이탈 학생들이 꼽은 이탈 이유는 ‘지루하고 의미 없는 예배’(38%)였는데 반해, 교사나 사역자들은 이를 ‘학업 부담’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학생과 교육자 간 큰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넘버즈 349호〉에서는 청소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려 하는지, 이탈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보고, 다음세대를 붙잡기 위한 관계적·교육적 대응책과 실질적인 목회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는 개신교를 기독교로 천주교는 가톨릭으로 기재합니다.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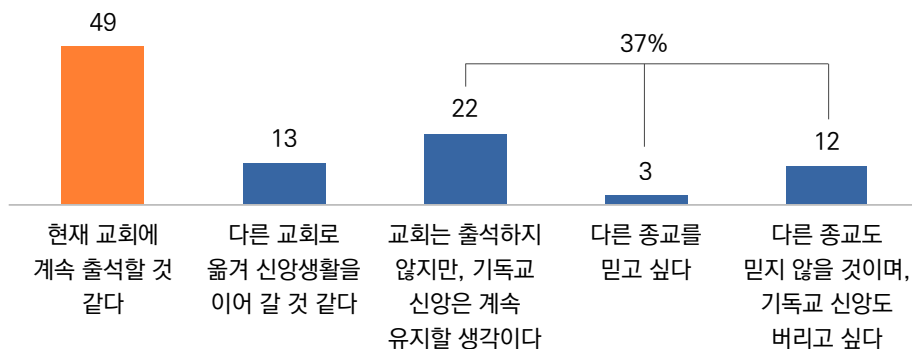
조사개요

구분	내 용				
	일반 학생	학부모	교회 이탈 학생	사역자	교사
조사 대상	만 14세~19세 개신교인 학생 (교회 출석 학생)	만 14~19세 자녀를 둔 개신교인 부모 (교회 출석자)	만 14~19세 과거 개신교를 믿었던 현재는 타종교 /무종교인 학생	한국교회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 (사역자)	한국교회 교회학교 담당 교사
표본 규모	총 500명 (유효표본)	총 600명 (유효표본)	총 200명 (유효표본)	총 300명 (유효표본)	총 435명 (유효표본)
표본 추출	지역/성/학급별 비례할당 추출 (자녀기준)* 비례할당 추출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 원’에서 발간한 2025년 교육통계연보 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추출함.		편의추출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 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 서 ±4.4%p	무작위추출을 전 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 서 ±4.0%p	-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온라인 조사(이메일 및 카톡을 통해 URL발송)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6년 01월 22일~02월 06일			2026년 01월 22일~02월 02일	2026년 01월 19일~02월 28일
조사 의뢰 기관	(사)꿈이 있는 미래(꿈미) /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교회 출석 중고생 3명 중 1명 이상, 성인된 후 ‘교회 떠날 것’!

- 교회 출석 중고생을 대상으로 성인이 된 후 신앙생활 전망을 묻은 결과, ‘현재 교회에 계속 출석할 것 같다’는 49%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또 ‘다른 교회로 옮겨 신앙생활을 이어 갈 것 같다’는 13%로 나타나, ‘교회 출석 유지 의향’을 밝힌 비율은 전체의 62%였다.
- 반면, ‘교회는 출석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은 계속 유지’(22%)하거나 ‘타 종교로 전환’(3%) 혹은 ‘무종교인으로 전향’(12%) 계획이라 응답한 ‘교회 이탈 예상군’ 비율은 37%였다. 현재 교회 출석 중고생 3명 중 1명 이상은 성인이 된 후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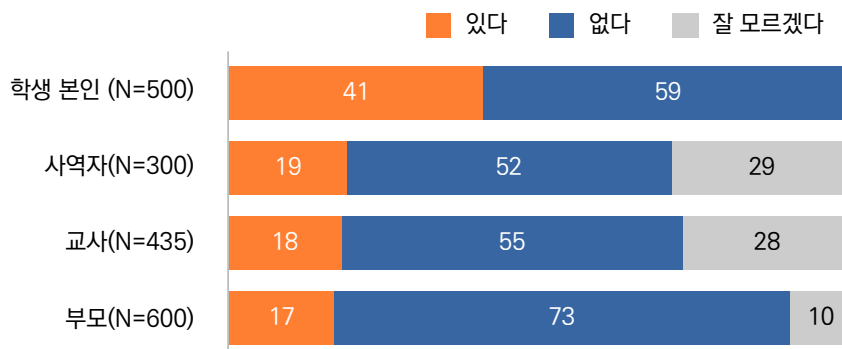
[그림] 향후 신앙생활 전망 (교회 출석 중고생, N=500, %)



교회 출석 중고생 10명 중 4명이 교회 이탈 고민 중!

- 현재 교회 출석 중고생을 대상으로 지난 1년 사이 교회 이탈 고민 여부를 묻은 결과, 학생의 41%가 ‘이탈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교회 어른들의 체감도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 교회학교 학생이나 자녀 중 ‘교회 이탈 고민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사역자 19%, 교사 18%, 부모 17%로 모두 10%대에 그쳤다.

[그림] 교회 이탈을 고민하는 학생이 있는지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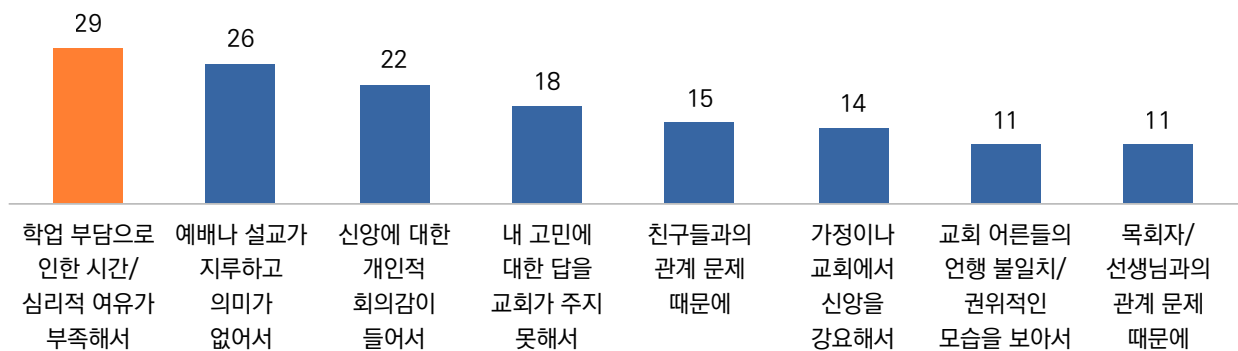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학업 부담’과 ‘예배 지루함/의미 부재’ 때문에 교회 떠날 생각했다!

- 교회 출석 학생 중 교회 이탈을 고민했던 학생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은 결과(1+2순위), ‘학업 부담’(29%)과 ‘예배 지루함/의미 없음’(26%)을 각각 1,2순위로 지목했다.
- 외부적 요인인 학업 부담(1위) 외에도 예배·설교의 의미 부재, 신앙에 대한 회의감, 고민에 대한 답의 부재 등 신앙·영적 요인(2~4순위)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현 교회가 청소년들의 영적 갈급함과 삶의 고민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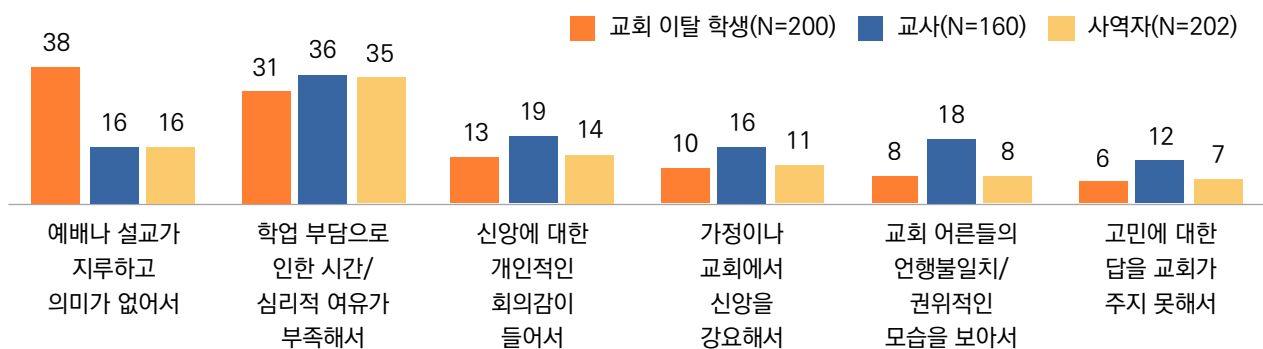
[그림] 교회 이탈의향 이유 (교회 이탈 의향 있었던 학생, 상위 8개, 1+2순위, N=205, %)



교회 이탈 학생, 예배/설교가 지루해서 교회 떠난다!

- 교회 이탈 학생이 꼽은 결정적 이탈 이유(1+2순위) 1위는 ‘예배나 설교가 지루하고 의미가 없어서’(38%)로 나타났다.
- 반면, 교사와 사역자들은 이탈 이유 1위로 ‘학업 부담’을 가장 높게 지적해 학생들과 큰 격차를 보였다.
- ‘예배나 설교가 지루하고 의미가 없다’(38%)는 응답은 단순히 전달방식이 지루한 문제를 넘어, 설교(메시지)가 학생 본인의 삶에 실제적인 은혜나 의미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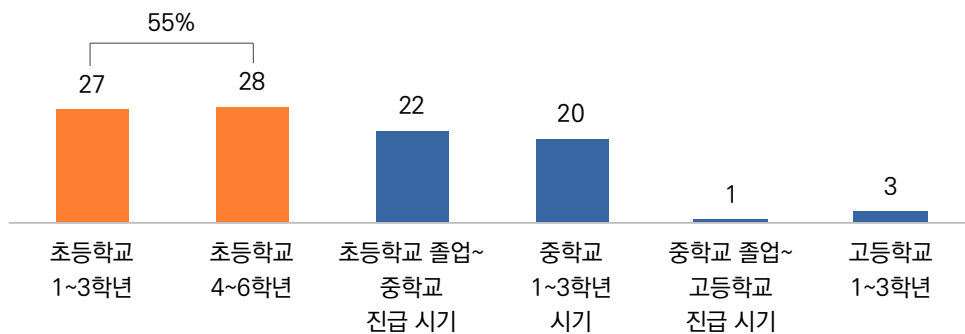
[그림] 학생의 교회 이탈 이유 (1+2순위, 학생기준 상위 6개, 중복응답, %)



교회 이탈 시점, 절반 이상은 ‘초등학교 때’!

- 교회를 떠난 시점을 묻은 결과, 교회 이탈 학생의 절반 이상(55%)이 ‘초등학교 때’(초1~3학년 27%, 초4~6학년 28%)라고 응답했다.
- 범위를 ‘중학교 입학 전’까지로 확대하면 77%에 달해,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중학교에 진학하기 전 이미 교회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초등 고학년 및 중학 진학 시기에 맞춘 이탈 예방 체계/프로그램 구축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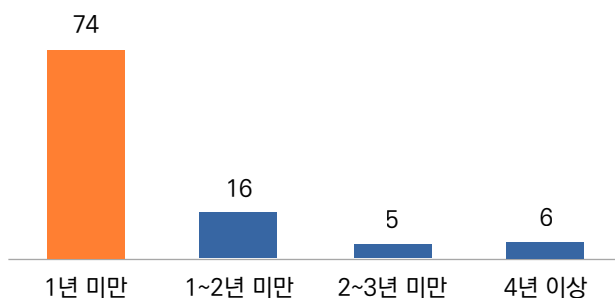
[그림] 교회 이탈 시점 (교회 이탈 학생, N=200, %)



교회 이탈 중고생 4명 중 3명, 결심 후 이탈까지 1년이 채 안 걸렸다!

- 교회 이탈 학생들에게 교회를 떠날 마음을 가진 때부터 실제로 교회를 떠나기까지 걸린 시간을 묻은 결과, ‘1년 미만’을 꼽은 비율이 74%였다. 4명 중 3명은 교회 이탈까지 1년이 채 안 걸린 셈이다.
- 이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실제 이탈로 이어지는 현상은, 아이들이 교회에 마음 둘 곳(친구, 교사, 사역자 등)이 부재하거나, 적극적 돌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이탈 작성 후 실제 교회 이탈까지 걸린 시간 (교회 이탈 학생, N=2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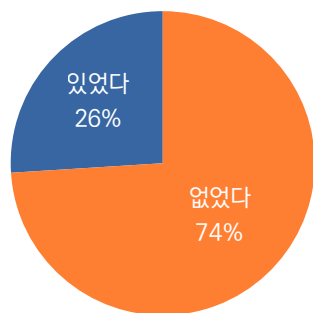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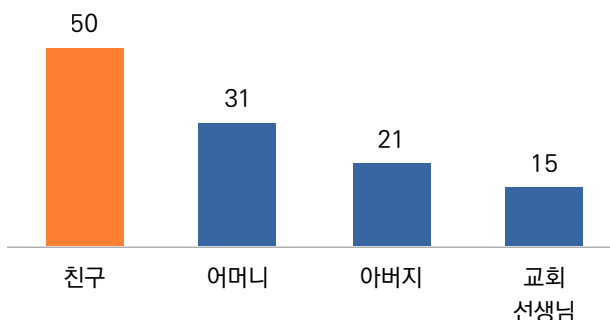
교회 이탈 중고생 74%, 이탈 당시 ‘고민 나눌 사람 없었다’!

- 교회 이탈 학생 대상으로 이탈 당시 고민을 나눌 사람이 있었는지를 물었더니 ‘없었다’는 응답이 74%로 10명 중 7명 이상에 달했다. 반면 ‘있었다’는 26%에 그쳐, 상당수 학생들이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채 이탈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이탈 당시 고민을 나누었더라도 그 대상은 ‘친구’(50%)가 가장 많아, 청소년들이 교회 이탈이라는 중대한 고민을 할 때 영적·정서적 멘토가 되어줄 교회 내 어른(선생님 15%)과의 소통이 매우 취약함을 보여준다.

[그림] 이탈 당시 고민 나눌 사람 여부
(교회 이탈 학생, N=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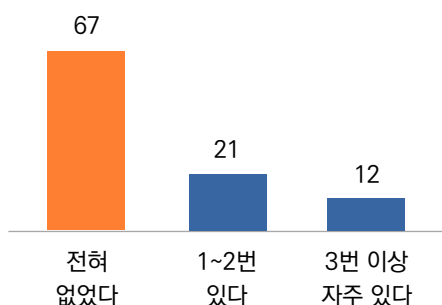
[그림] 이탈 당시 고민을 나눈 대상 (교회 이탈 당시 고민 나눌 대상이 있었던 학생, N=52, 중복응답, 상위 4개, %)



이탈 당시 사역자/교사의 심방, 3명 중 2명은 ‘전혀 없었다’!

- 교회 이탈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회 나가지 않았을 당시 사역자나 교사의 심방(전화, SNS, 대면) 경험을 묻은 결과, ‘전혀 없었다’가 67%로 3명 중 2명꼴에 달했다. 반면 ‘1~2번 있다’는 21%, ‘3번 이상 자주 있다’는 12%에 그쳤다.
- 이탈 시 교회의 연락이 없다는 비율이 67%라는 것은 현재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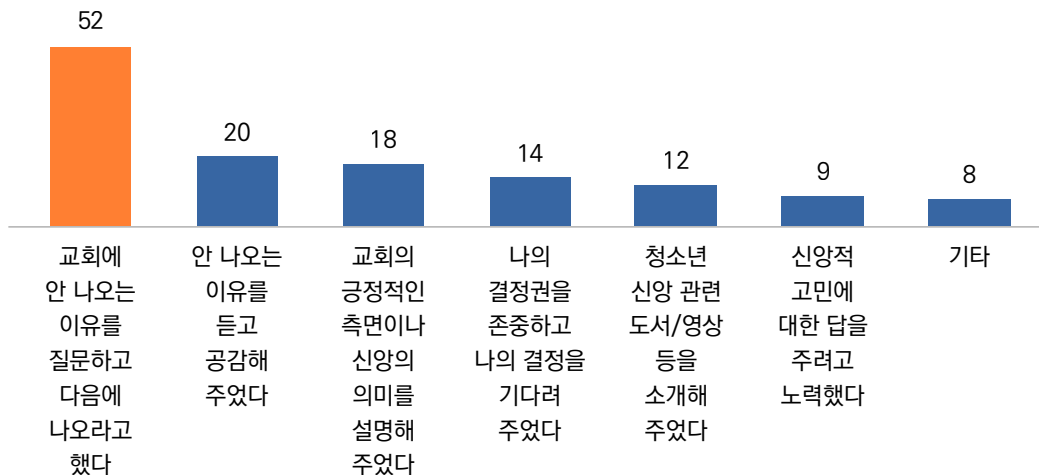
[그림] 이탈 당시 사역자/교사의 전화/SNS/대면 심방 경험 (교회 이탈 학생, N=200, %)



교사/교역자 심방, 단순한 출석 독려 수준에 그쳐

- 교회 이탈 시 사역자/교사의 심방을 경험한 학생에게 주된 심방 내용을 조사한 결과,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를 질문하고 다음에 나오라고 했다'가 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안 나오는 이유를 듣고 공감해 주었다'(20%), '교회의 긍정적인 측면이나 신앙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18%) 순이었다.
- 이는 심방이 이루어지더라도 깊이 있는 공감이나 영적 고민 해결보다는 단순한 출석 독려(5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을 보여준다.

[그림] 교사/사역자 심방시 심방내용 (이탈 당시 심방 받은 학생, N=6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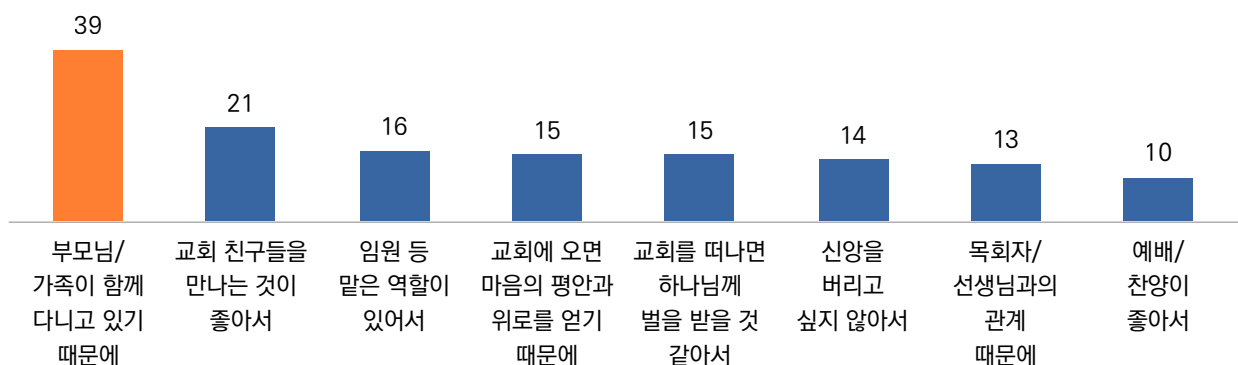
04

[교회 청소년 이탈 방지를 위한 과제]

이탈 고민에도 실제 교회 떠나지 못하는 이유, '부모님/가족'!

- 교회 이탈 의향이 있었음에도 실제로 교회를 떠나지 않은 이유(1+2순위)를 묻은 결과, '부모님/가족이 함께 다니고 있기 때문에'가 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교회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좋아서'(21%), '임원 등 맡은 역할이 있어서'(16%) 등의 순이었다.
- 가정과 친구 관계가 학생들의 교회 이탈을 막는 핵심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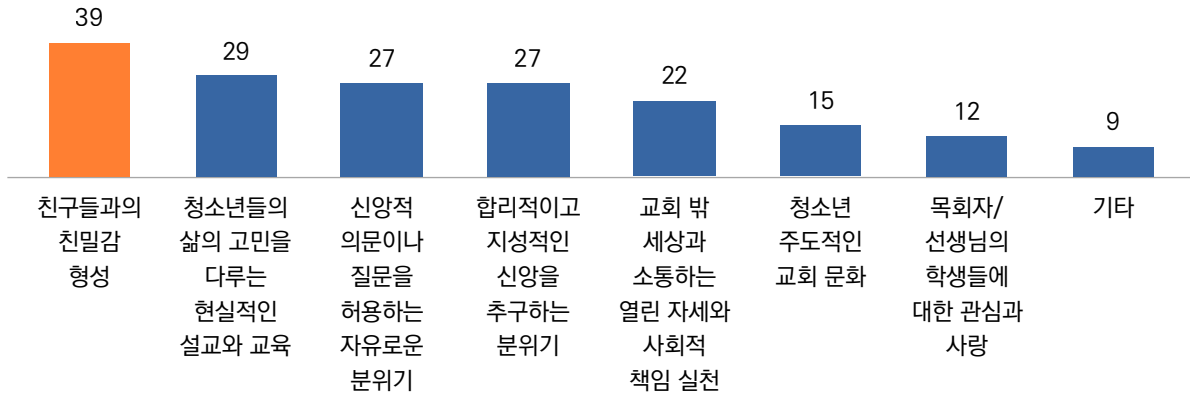
[그림] 교회를 이탈하지 않은 이유 (교회 이탈 의향 있었던 학생, 상위 8개, 1+2순위, N=205, %)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가 되려면, ‘친구관계’와 ‘삶·신앙 고민 다루는 교육’ 시급!

-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가 가장 시급히 변화해야 할 점(1+2순위)으로 ‘친구들과의 친밀감 형성’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청소년들의 삶의 고민을 다루는 현실적인 설교/교육’(29%), ‘신앙적 의문을 허용하는 자유로운 분위기’(27%),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분위기’(27%)가 뒤를 이었다.
-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교회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예배/설교의 개선과 함께 ‘친구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환경/프로그램’ 마련, ‘학생들의 삶의 고충과 신앙적 고민을 다루는 교육과 토론의 장’을 구축하는 것이 교회의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그림]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가 시급히 변화해야 할 점 (교회 이탈 학생, 1+2순위, N=200, %)



이번호 요약

1. 교회 출석 중고생 3명 중 1명 이상, 성인된 후 ‘교회 떠날 것’!

교회 출석 중고생을 대상으로 성인이 된 후 신앙생활 전망을 묻은 결과, ‘교회는 출석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은 계속 유지’(22%)하거나 ‘타 종교로 전환’(3%) 혹은 ‘어떤 종교도 믿지 않겠다’(12%)고 응답한 ‘교회 이탈 예상군’ 비율은 37%였다. 현재 교회 출석 중고생 3명 중 1명 이상은 성인이 된 후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2. 교회 이탈 학생, 예배/설교가 지루해서 교회 떠난다!

교회 이탈 학생이 꼽은 결정적 이탈 이유(1+2순위) 1위는 ‘예배나 설교가 지루하고 의미가 없어서’(38%)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와 사역자들은 이탈 이유 1위로 ‘학업 부담’을 가장 높게 지적해 학생들과 큰 격차를 보였다.

3.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가 되려면, ‘친구관계’와 ‘삶·신앙 고민 다루는 교육’ 시급!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가 가장 시급히 변화해야 할 점(1+2순위)으로 ‘친구들과의 친밀감 형성’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청소년들의 삶의 고민을 다루는 현실적인 설교/교육’(29%), ‘신앙적 의문을 허용하는 자유로운 분위기’(27%)가 뒤를 이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멘토링 사역 멘토링 목회 (나침반사, 박건 저)

관련 성경 구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목회 적용점

청소년의 ‘인비저블 엑시트(Invisible Exit)’는 출석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신앙 이탈의 위험을 보여준다. 교회 출석 중고생의 41%가 지난 1년 사이 이탈을 고민했지만, 이를 인지하는 사역자·교사·부모는 10%대에 그쳤다. 이탈을 결심한 뒤 떠나기까지 1년 미만도 74%에 달했다. 이에 다음의 두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사역자/교사가 청소년과 함께 삶을 공유하는 ‘Life on Life 사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제 이탈 학생들이 꼽은 핵심 원인은 ‘지루하고 의미 없는 예배/설교’(38%)였으나, 교사·사역자들은 이를 ‘학업 부담’(각각 36%, 35%) 탓으로 돌려 학생의 영적 고민과 어른들의 환경적 진단 사이에 큰 시각차를 보였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사역자와 교사가 학생들과 충분히 교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방증이다. 따라서 교회학교는 지식 전달 중심에서 벗어나, 교사와 사역자가 학생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고민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삶을 공유하는 관계 중심 사역’(Life on Life)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초등 고학년 시기부터 ‘관계 중심의 조기 이탈 예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탈 학생의 55%가 초등학 교 때 교회를 떠났고, 74%는 이탈 당시 고민을 나눌 어른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이탈을 막은 가장 큰 요인은 부모/가족(39%)과 친구(21%)였다. 따라서 교회가 학생들의 결석 시에만 연락하는 형식적 출석 독려(52%)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여 초등 고학년부터 학생들의 신앙과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교사·교역자와의 영적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선제적 돌봄 관계망을 형성해야 한다.